

태극기 게양대라는 헤게모니 국가장치론 서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본 연구는 특정 장소에 설비되어 공간을 실제적으로 장악하며, 어디에서나 가시화됨으로써 일반의 시각을 지배하는 태극기 게양대의 현안에 주목한다. 나/우리를 애국적 '국민' 주체로 호명·소환하는 태극기 게양대라는 장치의 주체에 천착한다. 2015년 내내 추진되고 10월이라는 우연성의 시간에 집중된 태극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정국 변환을 읽어 낼 중요한 상징·정치적 배치물로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국면 변화에 비판적으로 간섭하는 래디컬한 국면주의 문화 연구가 되고자 한다. 연구자는 전국 각지의 태극기/게양대를 인위적 구축의 결과, 의도적 설계의 산물로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신보수주의 자본국가를 현시하는 시각적 장비이자, 오늘날 대중의 사이코·이데올로기를 구성·표출하려는 공간적 장치로 읽는다. 국기 게양대를 국가이데올로기 장치의 한 양태로 간주하는 연구자는, 먼저 급증한 태극기 및 그와 관련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위로부터 조직화되고 아래로부터 추동된 '나라사랑 태극기 선양운동'의 실체를 해부한다. 이후, 연구자는 새로이 설치되는 대형 국기 게양(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논한다. 마지막으로, 그 지배의 효과를 정리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국가이데올로기 장치론 비판 및 지배 헤게모니 정치 전망의 결론을 맺을 것이다.

KEYWORDS 국기 게양, 장치, 헤게모니, 사이코·이데올로기, 우연성

1. 들어가며: 드높은 태극기 게양(대)라는 우연성의 헤게모니 전략

라클라우와 무페(Laclau & Mouffe, 1985)가 보기에, 국가 통치 혹은 지배 헤게모니 정치는 ‘우연성의 작동(contingent operation)’에 해당한다.¹⁾ 이렇지만 저럴 수도 있는 미획정된 사태, 작태다. 특정 시공간에서 표출되는 일종의 국면적인(conjunctural) 활동이자 접합적인 운동인 셈이다. 유동적 국면에서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특수한 정치 전략 양태인 헤게모니다. 요컨대, 헤게모니란 국가와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우발적 보편성(contingent universalism)’ 구축의 특정한 전략 정치에 다름 아니다(Butler, Laclau & Žižek, 2000).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5년 10월을 기축으로 한 지배 헤게모니 우연성 전략을 정치적으로 독해코자 한다. 태극기 게양 및 그와 접합된 애국심 동원의 정치를 통한 국가 헤게모니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코자 한다. 민주화 투쟁과 광주민중항쟁, ‘붉은악마 현상’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 상징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 태극기다. 그런 태극기를 국가 권력의 상징적 기표로 재배치하려는 체제 전략을, 광복 70주년 기념의 해, 유신의 기억이 겹치는 10월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게 본 연구의 목표다.²⁾

사실, 2015년 10월 이전에 한국 사회는 뜨거운 ‘내전’ 상태에 돌입하다시피 했다. 이데올로기 교착 상태에 빠져든다. 피아가 확연히 구별되는, 슈미트(Schmitt, 2007)가 말하는 적과 동지 간 대치선이 그어진 정치의 시간이 펼쳐진다. 정치의 연속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정치를 전쟁의 연장선으로 파악한 슈미트였다. 그런 그가 말하는, 외부/적과의 대치를 앞세워 일체의 결속과 전체의 단속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활동 시간을 위압하는 전쟁 상황이 바로 지금 여기에 펼쳐진다.

‘좌파 척결’의 배타적 전쟁 논리, ‘우파 집결’의 호전적 전장 심리가 도시 일상의 공간에 표출된다. ‘국가 수호’의 수사, ‘애국 시민’의 선동이 주류 매체는 물론이고 인터넷 공간

1) 영어 ‘contingency’는 국내에서 ‘우연성’이나 ‘우발적인 것’으로 번역된다. 냉정하게 말해, 두 단어 모두 원래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라클라우는 미리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이미 체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국면에 따라서 혹은 정황에 비춰 임기응변적으로 채택되고 새롭게 고안되는 헤게모니 전략 운용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채택한다. 헤게모니 개념과 밀접하게 결부·접합된 개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족하지만 ‘우연성’과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문맥에 따라 유연하게 병행할 것이다.

2) 말했듯이, 태극기는 그 의미가 단일하게 고착되는 게 결코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확정된 태극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특수하게 구성·발휘되는 태극기의 의미다. 역사적인 태극기인 셈이다. 국기 게양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다. 태극기 게양대라는 기표는 국면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다른 정치적 기의를 지닐 수 있다. 제국 식민에 반하는 민족해방의 정치 상징물인 태극기였다. 1980년 5월 봉기한 광주의 시민들이 휘날리고 탈취한 차량에 달려 죽은 자들의 시신에 덮었던 태극기 또한 그 특별한 정황·국면에서 특정한 의미가 새겨질 것이다.

에서 통용된다. 한편, 국가는 과거사 기술과 역사 정리의 단일화 작업에 진력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다. 증언하는 하위 주체들의 이질적 기억들을 폐위하고, 국가 정통성을 위반하는 대항적 기록들을 기각하는 억압적 프로젝트다.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역사 전쟁이, 슈미트가 정확히 간파했듯이 국가를 중심으로 맹렬히 전개된다.

이런 헤게모니 정치 드라이브가 2015년 중·후반에 이르러 극적으로 증강된다. 연구자는 그해 8·15를 전후로 전개된 ‘광복 70주년’ 기념의 문화 정치에 관한 국면 분석을 시도해 본 바 있다.³⁾ 현 논문에서는 그와 정치적으로 접합된 10월의 또 다른 양상에 주목한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 비해 대중의 관심은 물론 (문화)연구자의 주목을 전혀 끌지 못하는 사안이다. 현재적 헤게모니 통치 국면을 물리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낼 대표적 현실임에도 그러하다. 국정 교과서 문제처럼 국가가 통치적으로 주도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동원이 가세한, 태극기 게양(대) 배치라는 현상이다.

파멸적 총력전으로 돌입한 일제 식민지시기에 본격화된 국가 통치 행위로서의 국기 게양이다. 해방 후 군사/독재의 시기 내내 국가 의례의 중심점으로 작용한 국기 게양대다. 그 국가주의 표식 및 전시의 행위가 21세기 포스트모던의 시공간에 재연된다. 명백하게 구태로 회귀하고 과거를 상시시키는 이상한 역사 반복의 기류다. 역사의 복고다. “과거는 죽지 않는다(모리스, 2005/2006, 14쪽)”, 오직 반복될 따름이다. 물론, 차이를 배태하면서다. 대체 무슨 일인가? 태극기가 국가 통치 수단으로 기능했던 과거사를 복기하면서, 현행의 반복상을 사건적으로 분석하는 과제가 시급해진다.

중요한 것은, 2015년에 들어 고양된 태극기 게양이 별개의 사건, 독립된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타의 통치적 동세와 접합 관계를 이룬다.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조국 근대화 게양대’가 들어서는 식이다. 보수, 반공,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의 전략과 상징 구축의 공작이 짝패를 이룬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자”⁴⁾ 높이 36m의 초대형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는 것이다. 고취할 애국심, 드높일 대한민국이 기념관과 함께 태극기로 구체화된다. 전자의 주체가 국가라면, 후자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다. 그것을 매개하는 국기다.

2015년은 이렇듯 여타 실행과 접합된 태극기 게양대 재설치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3) 이 주제에 관해 본인은 ‘신화 정치의 위기 속 역사철학과 문화 연구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논문을 쓴 바 있다. 문화 연구가 어떻게 역사철학과 만남으로써 국면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비판적 개념과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할 것인지를 고민해 본 글이다(전규찬, 2015).

4) 《연합뉴스》 2015. 7. 29.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36m 국기게양대 준공’.

표면화된 해다. 다양한 주체들이 나선다. 예컨대, 국가보훈처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 높이 45m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코자 한다. 광복절 70주년 기념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광화문 바로 앞 세종대왕상 뒤편이 예정지다. 도심 광장의 전경을 크게 변모시킬 이 중요한 건축 계획은 현재로서 잠정적 유보 상태다.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누가, 왜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욕망하는가?

경향 각지에 펴럭이는 대형 태극기다. 그것의 상시적 전시를 위한 게양대다. 이들의 이데올로기·담론적 효과성을 비판적 문화 연구는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왜 하필 2015년 10월을 중심으로 이러한 배치의 정세가 펼쳐지는가? 민감하게 간섭할 정도로 이 일시적 현상은 문화 정치적 유의미성을 갖는가? 이에 대해, 연구자는 우선 ‘매우 그렇다’고 자답한다. 특정 장소에 설비되어 공간을 실제적으로 장악하며 사방에 가시화됨으로써 일반의 무의식 까지도 지배하는 태극기다. 자연스럽게 나/우리를 애국적 ‘국민’ 주체로 호명·위치시키는 게양(대)이다. 이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연구자는 전국 각소에 다양한 형태로 산개한 태극기/게양대를 예의주시한다. 의식화한다. 결코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 인위적인 헤게모니 구축의 장비, 의도적인 국민 설계의 일시적 표현체로 볼 것이다. 특정 시국, 특정 권력이 채택한 우연성의 전략적 표출물로 간주코자 한다. 신자유·신보수주의 자본 국가가 시의 적절하게 설치한 우발적 헤게모니 장비로서 읽는다, 2015년 10월의 국가/정세를 구성·표출하는 하나의 전략 장비로 인식하는 것이다. 알튀세르(Althusser)가 말한, 국가이데올로기 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SA)의 우연한 변형체로 본다.

국가의 신화적 표식인 태극기이자, 국가 권력의 신성한 표상으로 작동하는 게양(대)이다. 수직의 철골 구조물과 그 꼭대기에 부착된 상징 직조물이 하나의 장치로서 합체된다. 이런 문체 설정이 태극기 게양대는 물론이고 그것이 구성하는 주변 풍치 공간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게 연구자의 생각이다. 국기봉과 깃발로 결합된 국가이데올로기 장치에 관한 부정적인 사유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설치한 정체(政體) 및 그로써 조성되는 국면의 성질까지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징후적인 뉘앙스를 내포한 정치적 현실, 텍스트 장치이지 않은가?

연구자는 태극기 게양(대)을 의미심장한 기호로 본다. 그것을 ‘새로운 중세 도래’의 신 기호로 간주하면서, “기호를 둔 투쟁”을 개시한다(Grossberg, 1992, p. 359).⁵⁾ 태극기는 왜

5) 그로스버그는 이 문화 연구의 투쟁을 신보수·신자유주의가 심화되던 1990년대 초라는 미국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게양되는가? 배치의 과정에 어떤 동원과 지시의 통치, 즉 국가 정치가 벌어지나? 관과 민의 협업, 단체·기관의 동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미디어는 이 과정에 어떻게 간섭하나? 주류 매체는 물론이고 지역에 산개한 군소 매체와 무수한 인터넷 신문들은 어떻게 국가적 게양 사업을 위한 여론 형성에 실천적으로 기여하는가? 과연 비판과 저항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015년 10월이라는 특정 국면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날리기 및 그와 관련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래로부터 추진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선양 운동’을 국가 헤게모니 통치 전략의 측면에서 조명한다. 그 후, 연구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대형 국기 게양(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광화문 게양대 설치를 둘러싼 이념·담론 투쟁의 사례를 재론하면서 비판적 결론을 맺을 것이다. 장치론은 서두에 언급한 우연성의 헤게모니 전략론과 함께 이 국면주의 글쓰기를 지지하는 핵심어가 된다.

2. 광복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퍼포먼스의 장치론

다시 문의한다. 과연 국기 게양대는 헤게모니 비판의 관점에서 현실의 문화 연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인가? 물론이다. 사실, 21세기 들어 배타적·인종차별적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서구에서는 이른바 ‘국기 날리기(flagging)’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일정하게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권력의 문제나 민족

특별하면서도 공통된 맥락에서 수행했다. 현실에 적극 개입하는 비판적 문화 연구(자)의 태도, 품성 혹은 방식을 그는 ‘radical contextualism’으로 정리했다(Grossberg, 1992). 이후 이 단어는 한국 문화 연구 진영 내부로 소개되어 ‘급진적 문맥주의’라고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로스버그의 ‘레디컬’ 개념은, 그가 빌려온 계명백한 마르크스의 원래적 사유에 비취볼 때, ‘급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마르크스는 현상의 표피 아래로 내려가 사태의 진상을 뿌리 혹은 기원으로부터 파악하는 발본(拔本)적 태도를 뜻하는 말로 ‘레디컬’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스버그 등 과거의 미국 문화 연구(자)와 관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타지의 문화 연구자들이 그들의 텍스트로부터 독해해 내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명백한 역사 패배의 시기, 그들은 불리한 정세 및 불길한 국면에 현실주의적 개입의 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오직 그러한 능동적 자세를 통해 문화 연구자인 ‘우리는 현 장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는 생각이다. 그 외에 답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현 장소’란 신보수·신자유주의 자본 국가의 통치가 관찰되고 있는, 그가 말하는 ‘새로운 중세’적 장소가 될 것이다. 2015년 10월의 한국 문화 연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로스버그와 교류한 피스크(Fiske)의 공간 산책도 일종의 전술적 글쓰기로서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인의 판단이었다(전규찬, 2015).

주의/애국주의 등 이데올로기의 주제를 일상생활 공간 속 국기라는 상징물과 결부시키지 못한 우리를 반성케 한다. 높이 치솟은 태극기 게양대를 일상의 중요한 문화 정치, 문화 통치, 문화 실천의 사안으로 접근토록 자극한다.

구체적으로, 문화 연구자인 소हत과 영화 이론가인 스태(Shohat & Stam, 2006)은 외부/적으로 지목된 타자를 배제한 상태의 각종 국기 이미지 선호 풍조가 어떻게 '우리' 사이의 배타적 나르시시즘을 조장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애국심이 국기를 날리는 것으로 축소·환원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 짚어본다. 국기를 크게 눈에 띄지 않고 별로 주목받지 않은 민족주의 표현의 주요 형식으로 조명하는 사회심리학 연구도 있었다. 국기를 국가 정체성 지각 및 인식의 핵심 매체로 접근하는 시도다(Billig, 1995).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람시(Gramsci)를 쫓아 '대중적인 것(the popular)'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천착해 온 문화 연구다. (국가)권력이 바로 이 두 가지 양상 혹은 층위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극적인 표현으로서의 정치, 정치라는 드라마틱한 외양은 지배 헤게모니 전략 비판을 지향하는 '프락시스(praxis)의 철학'이 유념할 핵심 포인트가 된다. 현실의 문화 정치는 헤게모니 실천의 정치적 '표현(expression)', 헤게모니 전략의 '외양/드러남(appearance)'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왜 우리는 태극기 날리기라는 지배적 현상에 제대로 주의하지 않는 것인가?

이 글은 바로 이런 반성에서 시작한다. 태극기 게양대를 헤게모니의 문제 설정에서 주시코자 한다. 그람시(1971)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국 각지의 필력이는 태극기는 자본 국가의 재보수화 공세기에 출현한 또 다른 혹은 색다른 지배 헤게모니 양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에 실질적으로 포섭된 시민사회를 통해 재생산되는 보수 정치력의 표현 매체, 국가가 주도하며 아래로부터의 동원·합의에 기초하는 헤게모니 지배 정치의 매개물이다. 위기 시 표출되는 애국심의 전시물인 태극기인 셈이다(Cho, 2007). 역사(교과서) 드라이브가 걸린 비상시국의 정치적 표현물이며, 국가 개조를 위한 우경화 예외 국면의 정치적 표현체인 태극기다. 그럼에도 비판적 관심은 사실상 전무한 게양대다.

연구자는 그 공백을 헤게모니에 덧붙여 장치라는 개념을 갖고 채우고자 한다. 태극기 날리기를 우연성을 핵심으로 한 헤게모니 지배 전략의 외양적 표현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게양대에 부착된 태극기를 (국가)장치로 인식하는 사유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명백히, 국기는 국가 존엄을 상징하고 애국심 고양을 지향하는 일종의 표현 장치다. 군중의 손에 들려 있거나 아니면 건물 외벽에 내걸릴 때, 혹은 대형 게양대 높이 휘날릴 때 태극기는 하나의 장치로서 작동한다. 그러면서 여타의 장치들과도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태극기 게양

(대)에 대한 장치론의 문제 설정이 절실한 이유다.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논구할 토픽이다.

사실, 장치론은 국내 미디어 문화 연구 분야에서 제대로 정리되거나 활용된 적이 드물다. 최근, 전규찬(2015)이 브레히트(Brecht)와 그람시로부터 시작해 알튀세르(Althusser)와 푸코(Foucault)를 거쳐 아감벤(Agamben)으로 이어지는 장치론의 계보학을 미디어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추적한 정도다. 이 글에서 그는 장치를 이데올로기·담론·신화(재)생산을 맡은, 특정 문맥 및 권력의 조건에 따라 배치·배정의 방식이 변모하는, 물리적이고 상징적이며 언어적인 네트워크로 정리했다.

장치를 주체화 혹은 주체 생산의 효과를 담당하는 기제로 파악한 아감벤(2009) 및 푸코(1980)의 사유에도 주목했다. 살아 있는 존재와 대비되는, 이들의 동작과 행위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물리적인 동시에 언어적인 장치다. 중요한 것은, 이 장치를 실제의 분석에 적용하고 현실의 양태를 그 이론에 비취 해석하는 일이다. 동시에, 장치 문제를 앞서 논의한 우연성의 헤게모니 전략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치 국면의 분석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작업일 것이다. 정확하게,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장치론을 태극기에 적용한다. 거꾸로, 계양대라는 특정 현상을 비판적 장치론에 기초하여 독해하고 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기실, 상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하위의 주체로 호명하는 태극기는 알튀세르가 설명한 체제 재생산을 위한 대중적 의례·실천의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ISAs) 개념과도 잘 어울린다. 명백하게, 국가(권력)의 상징인 태극기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복종의 재생산” 장치다(Althusser, 1995/2007, 97쪽). 나를 국가에 부속된 국민적 신민, 민족에 포섭된 균질적 주체로 호출하는 기제다.

‘국기에 대한 맹세’나 ‘국기 하·계양식’과 같은 태극기 관련 의례들은 주체의 위치를 지정하고 신분의 위상을 고착시키는 특별한 효과성을 무의식적으로 발휘한다. 국민적 일체성과 국가적 통합성을 강요하는 점에서 억압적인 동시에,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의 합의를 아래로부터 끌어내는 점에서 헤게모니적인 장치가 된다. ‘국가’와 ‘민족’, ‘반공’과 ‘애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로 국기라는 “장치들의 실천 활동 속에 존재한다”(Althusser, 1995/2007, 242쪽).⁶⁾ 장치의 일상화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시화에 다름 아니다.

6)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이들 외에도 몇몇 연구자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국기 문제에 관해 비판적 논의를 내놓았다. 도서관 등지에 매일 같이 계양되어 있는 지극히 평범한(banal) 국기가 무의식적으로 통합과 애국의 민족주의를 자극·조장한다. 국가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을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국기 날리기(flagging)’ 현상이다(Billig, 1995). 이처럼 국기가 대중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끼칠 수 있는 잠재의식적(subliminal) 효과에 관해 여러 연구자들이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시도하기도 한다(Jost, Kay &

넓고 교조적인 이론으로 간주되어 기피되거나 매우 거칠고 상투적인 방식으로만 인용되기 십상인 알튀세르의 ISAs론은 이렇듯 오늘날의 국기 현상을 장치로서 재인식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특히 작금의 현실과 관련하여, 그가 출제한 국가장치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은 진술이다. 기존 알튀세르 ISA 관련 논의에서 별반 조명 받지 못한 포인트다.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만드는 것은 여러 기관들과 조직들 그리고 이것들의 실천 활동들을 포함하고 경험하는 체계다”(Althusser, 1995/2007, 141쪽).

개별화된 방식이 아닌, “국가이데올로기라는 유일한 악곡에 의해 지배”되는 협력과 합주의 관계로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복수적(the plural) 장치들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한다. 요컨대,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장치 또한 접합(articulation)의 양상을 띤다. 다양한 실천들, 효력들 사이에 연관성을 맺는 접합의 과정이 장치들 간에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태극기(계양/대) 장치의 문제를 여타 장치들로부터 분리시켜 논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현 국면하 국가 권력의 다양한 장치들의 복수적 배치를 통한 헤게모니 우연성의 운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했듯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장치는 오직 접합의 관점에서만 제대로 그 작동의 방식 및 효력의 양상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예컨대 새로운 역사 지식 생산과 역사 주체 재생산을 위한 역사 교과서 장치 국정화를 단독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태극기 계양을 별도의 장치 현상으로 정리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양자 간 연동, 연합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접합의 고리에 유념하여, 태극기 계양 장치의 문제를 역사 교과서 장치 국정화의 조치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헤게모니 전략의 체계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두 장치의 유기적 연관성을 국면주의적으로 분석하는 게 맞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지점이다. 사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현안은 태극기 계양의 주제와 밀접하게 결부된 상태에서 기동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양자의 분리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 기억을 특정하게 단일화하고 미래의 기록 가능성까지

Thorisdottir, 2009).

그러나 지적했듯이 아겔벤과 푸코, 알튀세르 등의 (국가이데올로기) 장치 개념을 채택하여 국기 현상을 설명코자 한 시도는 국내외 공통적으로 거의 드물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의 상황이다. 국내에서 본인은 태극기 혹은 국기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국기가 피력하는 상징적·이념적 효과를 언급하는 글은 있지만, 국기의 주제에 천착하거나 계양/대를 국가라는 주제와 결부시키고 장치의 개념에 입각해 설명하려는 연구 논문은 부재하다. 국가주의나 애국주의에 관한 많은 비판적 논의와 재조되는 대목이다. 실질적, 구체적 장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국가/이데올로기 이론을 펼쳐 온 셈이다.

특수하게 단선화하고자 하는 현 신보수·신자유주의 자본 국가의 헤게모니 공세 전략이 이 두 가지 장치의 집합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문과 방송, 인터넷의 미디어 장치가 추가된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이 성조기를 들고 전국에 애국의 물결이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해 전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전국적으로 지지에 나서야 한다”⁷⁾는 주장은 이들의 집합 구동 체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듯 역사 기억 및 기록의 장치의 문제와 직결되고 미디어 이데올로기 장치와 밀접하게 연동된 상태에서, 태극기 장치와 태극기 날리기의 헤게모니 전략이 2015년 내내, 특히 10월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운용된다. 역사의 보존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태극기를 든 애국의 물결이 전국을 넘쳐나야”⁸⁾ 한다. 그런 주체의 호명을 쫓아, 대량의 보수군중들이 실제로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선다. ‘좌편향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국민대회’ 등 다양한 행사의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중복 척결’을 부르짖고 ‘애국’을 호소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장치를 주체화 혹은 주체 생산을 담당하는 효과성의 기제로 파악한 아감벤과 푸코를 언급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장치를 살아 있는 존재의 동작과 행위를 인위적으로 통제·결정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장치로 정의했다. 정확히 그러한 효과가 실제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참가자들은 태극기 흔드는 집체의 기계적 일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의 담론과 태극기 애호의 실천이 이른바 ‘중복좌파’ 척결이라는 반공의 논리, ‘애국’의 이데올로기로 수렴되는 점이다. ‘나라사랑’이 국가주의로 귀결되는 모습이다.⁹⁾

3. 휘날리는 태극기에 관한 지배적 미디어 담론

2015년 10월, 태극기는 인간의 손을 떠나 옷에 부착되고 무대 패션이 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복처럼 경찰 제복에도 곧 태극기를 달 것이라고 공표한다.¹⁰⁾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미 모든 장병의 군복에 태극기가 부착된 상태다. 급작

7) 〈뉴스타운〉 2015. 10. 31. ‘태극기를 든 애국의 물결이 전국을 넘쳐나야’.

8) 〈뉴스타운〉 2015. 10. 31. ‘태극기를 든 애국의 물결이 전국을 넘쳐나야’.

9)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헤게모니 장치로서의 태극기가 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태극기라는 장치와 그것을 휘날리는 집단 실천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 된다.

스레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에 한 시상식에 참석한 군 소속 연예인의 복장에 태극기 상하가 뒤집혀 박히는 '실수'가 벌어지겠지만, 태극기는 결코 그런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송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¹¹⁾

그렇다고 태극기가 인간의 손에만 들리고 '국민'의 몸에만 부착되는 건 아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반려견과 함께 하는 독도 수호 걷기대회'에 삼살개들이 온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행진한다. 애완견까지 태극기를 달고 '나라사랑' 실천에 참여하는 셈이다. 한편, '2015 북한 이탈 주민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이라는 긴 이름의 행사 참석자들은 통일 기원의 '희망나무'에 태극기를 매단다. 태극기는 그렇게 나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고착되고 저렇게 유동하는 '우리'의 국기 즉 국가다.

2015년 10월 태극기가 '나라사랑' 표식으로 전국 각지에 항시 펄럭이는 방식이다. 전방위적으로 가시화되고, 모든 장소에 현현한다. 못 시선을 장악하고, 온 공간을 지배할 것이다. 독도에서 펄럭이는 것은 물론이고, 박정희 서거 기념식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의 어느 교회당에서도 십자가나 예수상을 대신해 전면에 내걸릴 것이다. 태극기는 상공에도 스펙터클하게 전시된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대원들이 태극기를 펼친 채 멋진 고공낙하 시범을 보일 것이다.

말 그대로 태극기의 화려한 쇼다. 스펙터클이다. 10월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태극기로 물든다. 그러면서, 태극기는 TV와 같은 미디어 장치를 통해 훨씬 더 대중적인 이미지로 재전송된다. 미디어 장치와의 접합이다. 말했듯, 2015년 10월의 국면 분석은 역사 교과서 장치와 태극기 계양(대) 장치에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장치의 분석을 추가할 때 보다 완성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과 앞선 두 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이데올로기 신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탓이다.¹²⁾

10) <연합뉴스> 2015. 10. 26. '경찰 기동복에 내년부터 태극기 부착'.

11) 그렇기에 10월 29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분노로 종이로 인쇄된 태극기를 태운 한 청년이 '국기모독'죄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다. 수구 매체와 우익 네티즌들은 그의 행위를 두고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규탄했다. 태극기에 관한 한, 이 땅에서 합리적인 토론의 시공간은 사실상 폐쇄되어 있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국가와 달리 국기의 문제가 문화연구를 포함한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포착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현실의 압박 요인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연구의 담론 또한 정세의 문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국기의 문제를 비판하면 곧 '비국민' 좌파로 낙인 찍어 버리는 스테이트(state: 국가/상황)가 지속되는 한, 본격적인 개진 가능성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거꾸로 말하자면, 국기의 문제 설정이 현 스테이트 타개를 위한 중대한 틈입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문화 연구, 문화 정치의 결정적 포인트인 것이다.

12) 뉴스만이 애국주의 텍스트로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가령, SBS 예능 프로그램인 <오 마이 베이비>에서는 아이가 개천절을 맞아 태극기를 손수 만들어 내건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아이의 노래

이념 투쟁도 할 만큼 했고, 노사 분규도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내고 있으니 더 이상 나라를 흔들지 말고 모두가 태극기를 계양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우리의 민족성과 주권과 국위를 나타내는 표지요 심벌이다. 태극기 계양을 거부하고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고, 교실에 걸린 태극기를 우상 숭배라고 하며, 태극기가 일 년 내내 먼지와 눈비를 맞아 때가 새까맣게 끼어 계양대에 걸려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면서 단체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요원하다.¹³⁾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가의 좋은 일이나 기념할 일에는 태극기 달기를 통해 온 국민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자녀에 대한 생활교육 차원에서 태극기를 달면서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일이면 제 569돌 한글날이다. 미리 태극기를 준비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 혹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솔선하여 태극기를 달았으면 좋겠다.¹⁴⁾

지역 및 인터넷 매체가 주된 매개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한다.¹⁵⁾ 주류매체에 비해 여론 파급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위의 매체들이다. 그렇기에 미디어

에 맞춰 태극기가 펠릭이고, 카메라는 그런 아이를 안은 부모의 행복을 비춘다. 애국적 가족이 텔레비전 오락 내부에서도 탄생한다.

13) <스포츠 월드> 2015. 10. 22. '애국심의 표상으로 태극기 계양 의미 되새기다'.

14) <제주일보> 2015. 10. 10. 8. '태극기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15) 다음은 2015년 10월 초반 전국의 다양한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태극기 관련 기사 일부다.

<제주일보> 2015. 10. 10. 8. '태극기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한국일보> 2015. 10. 8. '내일 569돌 한글날 기념식...전 가정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남일보> 2015. 10. 5. '광주도시공사, 1500세대에 태극기 무료 지급'

<대구신문> 2015. 10. 5. "'태극기 달고 애국심 키워요'"

<충청일보> 2015. 10. 4. '나라사랑실천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뉴스시> 2015. 10. 4. '대구이곡초동학생,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거리 캠페인'

<중부매일> 2015. 10. 4. '중평군 나라사랑실천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스포츠조선> 2015. 10. 3. '헬로비너스, 개천절 맞아 태극기 계양...“멋진 조상님, 감사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5. 10. 3. '수원시 장안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미디어펜> 2015. 10. 3. '빨강과 파랑이 만난 동그란 태극...개천절은 태극기 다는 날'

<강원일보> 2015. 10. 2. "'내일 개천절...강릉은 태극기 물결'"

<일요신문> 2015. 10. 1. '오산시,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동양일보> 2015. 10. 1. '청주 아암동 태극기 임시 위탁판매소 운영'

<일요신문> 2015. 10. 1. '강화군,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나라사랑 실천'

문화 연구에서조차 지금까지 크게 분석적, 비판적 주목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 주류 저널리즘 연구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문화 연구는 전통적으로 규모가 큰 매체에 비판적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사이즈가 클수록 대중적 영향력이 높고, 따라서 연구의 의미 혹은 의미 연구의 가치가 크다는 전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현실 변화의 정확한 인식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매체 기술 변화에 따른 저널리즘 배급 양식의 변동, 대중들 간 뉴스 소비 패턴의 변환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들은 뉴스를 텔레비전 수상기의 특정한 채널 혹은 특정해서 구독하는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만 접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처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산개되어 있는, 포탈이 인위적으로 내장 처리한 콘텐츠로서 자유롭게 일람한다. 그렇기에, 인터넷의 뉴스 영향력은 매체 사이즈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태극기 관련 뉴스가 주로 군소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다는 사실이 현상의 무게감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장치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뉴스 유통을 지배하는 인터넷 플랫폼상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애국주의 헤게모니 장치 체계의 핵심일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개별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전승하고 다양한 태극기 관련 행사들을 전국적 캠페인으로 조직하면서, 말단의 채널들은 헤게모니 창출을 담당할 전국적 미디어 장치 체계를 아래로부터 구성해 낸다.

한편, 사진은 당대의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지 우리의 인식을 지정·교정하는, 그 자체 하나의 중요한 기제에 해당한다. 시각적 코드, 세계 이해의 문법, ‘봄의 윤리(ethics of seeing)’를 가르쳐 주는 장치다(Sontag, 1973). (인터넷)사진도 마찬가지고, 대량으로 현상된 태극기 사진 이미지도 정확히 그러하다. 2015년 10월, 신문과 이들의 기사가 유통·소비되는 인터넷 포털 공간에는 태극기의 영상이 가히 폭발한다. 세계를 인식하는 대중의 눈, ‘우리’의 정치 윤리적 감각을 설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다.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위해 거리로 나선 아이들만 사진에 나오지 않는다. 수많은 ‘국민’들의 애국심이 사진으로 현상된다. 몸소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는 주민들, 가까호호를 방문해 태극기를 달아 주는 공무원들, ‘태극기 거리’ 조성에 앞장선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진으로 ‘나라사랑’을 체현하고 있다. 집집마다 직접 구입한 태극기를 전달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로 한” 노인들의 결연한 자세도 빠트릴 수 없다.¹⁶⁾ 인터넷의 무수한 사진들은 그렇게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 애국심을 형상화한다.

물론, 사진만 말하지 않는다. <경남일보>의 포토에세이 ‘10월은 태극기 휘날리는 달’

16) <전북도민일보> 2015. 10. 6. ‘김제시 교월동, 나라사랑 태극기계양 참여’.

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태극기 사랑으로 뿔뿔 뭉친 애국혼은 조국 광복과 대한독립만세를 이끌어 낸 구심력이었다.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 때 전국 방방곡곡을 수놓은 태극기 물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¹⁷⁾ 과거의 ‘장관’을 재연하자는 이야기다. “태극기 사랑은 나라사랑이다.”¹⁸⁾ 미디어는 그렇게 태극기를 구심적 표상으로 설정한 후, 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국가라는 추상적인 숭고 대상에 대한 보편의 애정으로 승화시킨다.

4. ‘국기 선양’을 위한 민관일체의 사업과 국가의 그림자

이 기간, 〈한겨레〉를 비롯한 비판적 매체는 태극기 장치, 태극기 날리기의 정치에 거의 주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보수 매체들은 태극기의 이미지와 담론을 일방적으로 유포한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태극기에 ‘애국’과 ‘반공’의 이데올로기를 덧씌운다. 계양을 꺼리거나 시비하는 집단은 중복좌파로 지목된다. 이런 노골적 이념 공세의 기사를 제외하더라도, 태극기 및 나라사랑의 정신 설파라는 점에서는 관련 뉴스는 공통성을 갖는다. 태극기에 대한 뉴스는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보도로 귀결되고 만다.

사적인 소유 형태를 취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이데올로기 장치로 그 기능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 매체다.¹⁹⁾ 그리하여 자본 국가의 미디어 담론이 국가이데올로기를 결과적으로 표방·표현하게 되는 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혀 놀랍지 않다. 사적으로 발화된 담론조차 결국은 국가이데올로기 재생산의 효과로 수렴된다. 사적, 공적, 국가적인 것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적인 게 국가적인 것을 표방하고, 국가적인 게 사적인 것 안으로 스며드는 구조다. 국민의 혼연일체는 자본 국가 미디어 담론의 실질적 구조이기도 하다.

태극기 문제로 돌아가면, ‘국기 선양이 곧 나라사랑, 애국 사업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완성된다. 명백한 복고의 언어, 체제의 복고다. 사실, 특정 존재의 명성이나 권위를 널리

17) 〈경남일보〉 2015. 10. 7. ‘10월은 태극기 휘날리는 달’

18) 〈경남일보〉 2015. 10. 7. ‘10월은 태극기 휘날리는 달’

19) 알튀세르의 장치론이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시민사회를 국가와 밀접하게 결부시켜 사유한 그림자와 비슷하게, 알튀세르 또한 다양한 신문들, 국영 혹은 공영 방송들을 ‘커뮤니케이션 ISA’로 뭉뚱그려버린다. 사영과 공영을 구분하지 않는다. 상당히 논쟁적인 지점인 바, 자칫 공영방송과 대안매체의 가능성을 좌파 스스로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자유주의 자본국가의 일부로 전락한 보수상업매체의 작동방식을 현실적으로 규명함에 있어 알튀세르의 문제의식이 매우 유용함을 현 한국의 상황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 새기는 실천, 활동으로서의 '선양(宣揚)'이다. 일제 식민주의 말 국민 총동원 시대부터 '국위(國威)', 즉 국가의 지위 혹은 위신이라는 말과 결부되어 사용된 단어다. 그리고 '국위 선양'이라는 완성된 4자 표현의 질서는 포스트콜로니얼의 시간에 들어서도, 군부 독재 유신정권을 거치면서, '국민'적 표기어로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운동선수들의 경기 시합, 심지어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줄곧 이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바로 그 명백히 (전)근대적인 '선양'의 언어/체제가 다름 아닌 2015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서 복귀한다. 국위의 추상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 국기라는 상징적 물질성에 새로이 부착된다. 이른바, '국기 선양'이다. '애국'의 윤리가 '나라사랑'이라는 보다 친숙한 마음(가짐)의 문제로 우선 말이 바뀌며, 태극기 달기/날리기는 이 나라사랑의 사이코 이데올로기를 표현할 일차적인 증거로 자리 잡는다.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차원에서 발화되며, 국경일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시간에도 항시 실천될 애국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서 제시된다. 깊은 사랑의 대상인 나라고, 그 애국심은 태극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를 뒤집어 부정명 형태로 바꾸면, 태극기를 휘날리려 하지 않는 것은 애국심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인 게 틀림없고, 그것은 나라와 국가를 부정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주권 국가의 충성스러운 신민/주체, 즉 '국민'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이다.

그런 막중한 사이코이데올로기적인 함의를 지닌 '국기 선양' 사업이 2015년에 들어 적극 추진된다. 10월 들어 특히 집중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다. 그 사업의 출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지시하는 중앙 권력을 확인하기가 방법론적으로 어렵다. 중심 없이 편재하는 양태를 띄며, 1인 권력자의 명령으로 수렴되지 않는 체계적 자율화의 구조화된 양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스케일, 스케줄, 운영 방식 등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익 반공주의 정치권력의 득세와 함께 '국기 선양'의 애국주의 레짐이 구축·강화된 점이다. 전국적인 수준의,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 것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태극기 홍보 채널로 작동한 미디어 장치를 통해서다. 앞서 살펴본, 대대적인 태극기 관련 보도는 조직적으로 실행된 실질적 국기 선양 사업을 언어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디어/시민사회/민간단체와 국가/정부/지자체/국가라는 더는 분리되지 않는 두 가지 차원·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태극기 선양의 실천 사업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정확히 그람시가 간파한 지점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현실의 통치, 정치는 이 두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이루어진다. 신자유·신보수주의 자본 국가로의 진화가 국가와 시민사회 협착 구조, 보다 정확하게 말해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 폐쇄의

현상을 노골적으로 강제한다. 민주주의 위기는 이 식민화의 다른 표기며, 한국의 현 국면이 이 상태를 명확히 실증한다. 그리고 국기 선양 사업은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 즉 통치에 의한 ‘정치적인 것’의 제압 상황을 보여 주는 구체적 실례가 될 것이다.

사실, 국기 선양 사업 관련 담론에서 우리는 국가의 그림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어떤 역술인은 이렇게 썼다. 2015년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가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각계 사회단체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친다. “주민 간담회, 직능단체회의, 등록문화재 태극기 사진전 및 대중교통, 매스미디어, 현수막, SNS 등을 통해 ‘국경일 태극기 달기’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²⁰⁾ 계획 구상 및 사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사랑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다. ‘태극기 사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가 대주제로 내걸릴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초·중등학생에 대한 올바른 국가 정체성 교육을 시키며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나라사랑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실시된 행사다.²¹⁾ 강원도의 한 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나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아래의 포스터로 상을 소개하고, 신문은 그것을 소식으로 알린다.

학교가 적극 나선다. 여러 초등학교가 10월을 맞아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한다. 그 일환으로 ‘태극기 내 손으로 달기 운동’도 실천한다. 태극기 바르게 다는 법, 태극기 바르게 그리기 교육과 병행된 프로그램이다. 태극기 없는 가정에는 태극기를 직접 보급할 것이다. 태극기 선양(교육)의 효과는 이렇듯 학교라는 국가 기구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이에 호응·참여하며, 그 활동상을 여러 매체가 뉴스 보도함으로써 삼중의 층위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그림자가 배후에서 질게 어른거린다.

중앙 정부의 지배를 받는 지자체들도 가히 경쟁적이다. 순천시가 70억 원을 들여 ‘태극기 무궁화 박물관’ 건립에 나선다. ‘국방 수도’ 계룡시 의회는 ‘국기 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수호와 국기 계양일의 지정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다. 계룡시장은 “국기의 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²²⁾ 전 세대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진 천안시 불당동의 경우에는, 10월 초 이미 “태

20) <스포츠 월드> 2015. 10. 22. ‘애국심의 표상으로 태극기 계양의 의미를 되새기다’.

21) <강원신문> 2015. 10. 19.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사랑 포스터 공모전 시상’

22) <대전일보> 2015. 10. 21. ‘계룡시 태극기 선양사업 강화 추진’.

극기 물결”이다.²³⁾

한편,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에서는 이장단이 마을회관에 연중 나라사랑 태극기를 다는 운동을 전개기로 결의한다. 경상남도 창원군 대지면은 사무실 전 직원의 책상에 태극기 하나씩을 부착한다. 구리시 수택3동사무소에서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펼럭이는 태극기 배지와 유니폼을 착용하고 민원을 응대”키로 한 것이다.²⁴⁾ 같은 시기,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2동주민센터에는 입구부터 민원실 앞까지 태극기 50기가 게양되어 있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태극기 관련 활동은 당연히 동사무소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과 이들의 생활공간을 최종의 목표로 삼는다.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사무소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집중 추진 기간을 맞아 전 세대가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함은 물론 차량에도 태극기를 부착해 나라사랑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차량용 태극기를 배부한다.²⁵⁾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주민센터는 2,700여 세대가 모두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에 동참하는 실적을 거둔다. 수차례 방송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협조 공문을 발송해 이뤄 낸 것이다.

물론 이들의 실적은 정확하게 평가된다. 수원시 영통구는 자체 평가를 통해 매탄1동 주민센터를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우수 부서로 선정한다. “지난 8월 한 달간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태극기를 다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청사에 대형 태극기를 걸고, 태극기 100여 개로 태극기 시범거리를 조성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태극기 봉사단’을 운영, 각종 캠페인과 체험 활동을 펼친다.²⁶⁾

당연히, 성과에는 보상이 따른다. 울산시가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협의회, 초등학교 등도 포함된다. 그중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구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자체 예산과 기부금을 들여 태극기 700여 개를 입주민들에게 무료 배포, 태극기 게양률 향상에 기여했다.²⁷⁾ 북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6월부터 광복절까지 ‘나라사랑의 시작은 태극기 달기부터’라는 구호

23) <중무매일> 2015. 10. 8. ‘천안 불당동은 태극기 물결’.

24) <국제뉴스> 2015. 10. 29. ‘구리시 수택3동 태극기 선양 운동 전직원 뱃지 유니폼 착용!’.

25) <경남매일> 2015. 10. 6. ‘창녕군 도천면, 차량용 태극기 배부’.

26) <경인일보> 2015. 10. 7. ‘태극기 가장 많이 휘날리는 매탄1동’.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광복절 태극기 달기 인증사진 릴레이, 찾아가는 태극기 판매소, 태극기 달기 모범아파트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아파트와 주택가 거주민들을 상대로, 높은 태극기 게양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27) <국제뉴스> 2015. 10. 7. ‘울산시,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유공자 표창 수여’.

와 함께 매주 금요일 아침 학교 주변에서 출근 시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펼친 공적을 인정 받는다.

5.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로서의 국기 게양대 설치와 시각의 장악

‘국기 선양’으로 집약된 10월 국면의 헤게모니 사업은 이처럼 말단의 국가 기구들을 통해 아래로부터 진행된다. 시 지자체, 동사무소, 이장이 위로부터 지정된 것임에 틀림없는 사업 추진의 담당자가 된다. 여기에 이른바 ‘민간’ 부문이 긴밀하게 유착된다. 아파트부녀회, 아파트대표협의회와 같은 것들이다. 모두가 한국 사회 내 국가 통치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선들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일상생활 간 영역 침투 및 동질화를 책임진 정치 즉 통치의 핵심 단위이지만 막상 비판적 연구의 관심에서는 크게 배제되어 왔던 지점이다.

국가는 자본까지도 구동한다. 국가 권력의 이해관계와 기업의 이익이 겹쳐 있는 자본 국가의 사회에서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기 선양의 사업, 태극기 날리기의 헤게모니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가령, 한 아웃도어 회사가 ‘올바른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명산100 태극기 휘날리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광복절 15개의 산에서 1,000여 명이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로부터 시작한다. 10월 초까지, 전국 100개의 산 정상에서 무려 약 6천회 태극기를 게양할 계획이다.

“태극기를 배낭에 고이 담고 40번 산을 오르는 동안 광복의 의미와 통일을 생각하”고, “멋진 금수강산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순간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한 행사다.”²⁸⁾ 이처럼 개별 기업이 능동적으로 설계한 행사와 국가가 조직적으로 집행해 온 사업 간에 이데올로기적 의도 측면에서 그 어떤 차이도 발견해 낼 수 없다. 강력한 구조적 상동성이 발견된다. 국기의 선양, 국가의 선양 효과다. 태극기 날리기의 프로젝트가 보여 주는 억압적 자본 국가 내 지배 헤게모니 작동의 또 다른 양상이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내걸고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즈에 나선다. 그에 앞서 롯데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2롯데월드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부착한다. 336개의 유리창을 이용해, 262평 넓이의 태극기를 국내 최고 높이에 내붙인다. 경영권 다툼과 ‘국적 논란’을 의식한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롯데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잘 버텼다는 의미로 가로 길이 36m에 세로 24m 크기로 제작됐다”는

28) <한국경제> 2015. 10. 21. ‘블랙야크, 건전한 아웃도어 문화캠페인...명산 찾아 태극기 행사.’

설명을 내놓는다.²⁹⁾

재벌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국가-자본-사회를 아우르는 태극기 날리기의 ‘국기 선양’에 가담하게 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정보, 파편적 단서를 매체의 관련 보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국가의 길은 그림자다.

최근 정부가 광복 70주년인 올해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 등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데, 방송사와 기업 등에 협조를 구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고 고객 사은품으로 태극기를 나눠줄 것을 권장하는 안도 있다.³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 운동이다. 앞서 살펴본 경향 각지 지자체와 학교, 기업의 자발적으로 보이는 ‘태극기 달기 운동’, 개별화된 ‘나라사랑 운동’ 또한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해 주도·지정된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국민’은 참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위로부터의 동원에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동의’의 실제적 모습이다.

요컨대, 상하가 협착하여 태극기 현시의 계양 장치를 전국적으로 조직한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시골과 지역 어디든 태극기를 펴력하게 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의 전국적 조직화다. 바로 이 전국화 사업을 통해 국가는 물리적이고 상징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실체로서 경향 각지에 현현한다. 즉, 태극기 계양대의 전국적 편성을 통해 국가 권력 또한 전국적으로 강화되며,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나 더욱 쉽게, 자연스럽게 실감할 수 있는 국체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시각적, 공간적 양식화를 낳는 하나의 배치다(이진경, 1997). 이제, 건물 외벽에 내걸리거나 옥상에 들어선 태극기를 보는 일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지상 곳곳에 설치된 국기 계양대와 마주치는 것도 별반 낯선 일이 아니다. 보령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태극기 선양 사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시는 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업적을 기린다면 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의 자택에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다. 어느 기업 대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보령시가 설치를 완료한다. “뜻 깊은 태극기 선양 사업”이다.³¹⁾

29) <Korea IT Times> 2015. 10. 14. ‘연말에 수명 다하는 롯데월드타워 초대형 태극기’.

30) <이데일리> 2015. 3. 20. ‘중국의 탈 IOE 바람... 애국 마케팅의 명과 암’.

31) <중도일보> 2015. 10. 7. ‘보령시의 뜻 깊은 태극기 선양사업 화제’, 후손들이 영성한 집안 대문 옆에 설치된 태극기 앞에 부동으로 선다. 그중 한명은 가슴에 손을 댄 상태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모습이다. 지붕 위 국기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일찌감치, 구리시가 그보다 훨씬 큰 게양대를 세웠다. ‘태극기 도시’, ‘충정의 도시’다운 선택이다. 아차산 증턱에 2013년 광복절을 맞아 75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된다. 철탑 위에 태극기를 게양한 100m 높이 임진각 대성동 게양대를 제외하고는, 단일 지주 국기 게양대로서 전국 최대의 규모다. 그 크기가 무려 가로 18m, 세로 12m인 태극기가 늘 게양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인 2007년에는 한강시민공원에도 높이 50m 대형 태극기가 설치된다.

사실, 서울 여의도광장 등지에도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던 점을 함께 고려할 때, 2015년 오늘의 대형 게양대 설치의 새삼 놀라운 현상이 아닐지 모른다. 차이 나는 것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특정 지자체를 벗어나 여러 공간에 게양대가 편재하는 현 국면의 방대한 규모다. 전국의 지자체,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나선다. 그 결과, 곳곳에서 태극기들이 하늘 높이 펄럭이게 된다. 애국적 시각 장치, 나라사랑 고양을 위한 국가 사이코이데올로기 장치의 전국적 보편화라 할 수 있겠다.

새로운 상징 장치가 네트워크 점조직처럼 전 국토에 건설된다. 당연히, 통행 대중의 시선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잘 보이기 위해서다. 국가의 전국적 전시, 국가 권력의 전 사회적 외면화. 일상생활의 ‘국민’들이 국가와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실상은 매일 접촉하지 않을 수 없듯이, 통행 대중들은 대중교통로 주변에 위치한 높다란 태극기 게양대들을 별반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확하게 신화와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작동의 방식이다. 공간 지배, 시각 장악, 주체 결정의 효과다.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전국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책임지고 나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015년 8월 15일 서울 양재IC 부근에 50m 높이 국기 게양대가 세워지고 태극기가 내걸린다. 경북 김천시에 비슷한 시기 더욱 높은 70m 태극기 게양 행사를 펼친 도로공사의 작품이다. 2012년 초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에 높이 50m 대형 게양대를 설치한 바 있는 공사다. 전 해인 2011년에 양재 나들목 녹지대에 또 다른 대형 태극기를 내건 바로 그 공사다.

주권 국가의 경계 지대인 인천국제공항에도 국가사랑의 드높은 상징물이 재차 설치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공항 진입로 인근에 대형 태극기를 이미 게양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 측은 2015년 광복절을 맞아 공항대로 초입부 자유무역 지역에 45m 높이의 게양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한편, 대구국제공항에는 대구 지역 최고 높이(30m)

는 그렇게 주체의 시각은 물론이고 (무)의식, 나아가 행동방식까지 지정할 것이다. 우리를 움직임 없는 ‘국민’의 위치로 고착시킨다. 말 그대로의, 복종이다.

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과 한국공항공사의 애국심 프로젝트 일환”³²⁾이다.

태극기 게양대는 지역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전국적 현상이 된다. 전라남도 순창에 33m 국기 게양대가 세워진다. 게양식에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같은 날 주민들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거리 캠페인’을 일제히 펼치고 있을 것이다. 순창읍 일대가 태극기로 메워진다. “군민에게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우고자 마련한 행사”라는 취지의 축사를 군수가 한다. “지역의 얼굴인 톨게이트 입구에 국가의 상징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한 만큼 군민 모두가 국가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는 훈시가 빠지지 않는다.³³⁾

기실, 태극기 게양대 설치의 사업에는 국가적 의례 장치의 건립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빠질 수 없다. 앞선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도, 기념식에 임직원 100여 명이 도열한다. 참석자들이 게양대 아래에 나란히 선다. 곧은 게양대의 수직선과 도열한 인사들의 수평선이 정확하게 교차한다. 이사장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할 것이다. “공항을 오가는 국민들에게는 광복 70주년의 큰 의미를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환영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형 태극기를 추가로 설치했다.”³⁴⁾

각지의 공식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공식이다. 우선 내용적으로, 국가-정부-단체가 합세한 태극기 날리기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이데올로기 담론으로 장식된다. 형식적으로는, 질서 체계가 무엇보다 부각된다. 그리고 숭고한 태극기 아래의 엄숙한 기념행사라는 이미지는 결국 태극기를 대중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 태도와 자세까지도 함께 지정할 것이다. 필력은 국기가 부착된 움직임 없는 게양대 아래에, ‘우리’ 또한 경건한 마음과 부동의 자세로 정지해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공식 효과를 수반하는 태극기 게양대다.

6. 나가며: 대형 태극기 게양대 배치를 둘러싼 공간의 문화 정치

이처럼 의례적 효과를 수반하는, 신체의 훈육 효과를 초래하는, 무엇보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스펙터클의 건축물이 국가 권력과 하위 기관, 민과 관의 합작에 의해 전국 각지에 들어선다. 인간적인 퍼포먼스, 신체의 자유로운 몸짓을 구속·강제하는 결과를 의도하면서도

32) <파이낸셜 뉴스> 2015. 8. 12. ‘대구지역 최고 높이 국기게양대 대구국제공항에 들어서’.

33) <전라남도민일보> 2015. 8. 12. ‘순창서 가장 높은 태극기 휘날린다’.

34) <OSEN> 2015. 6. 23. ‘인천공항, 광복 7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 게양’.

(코소, 2007/2012).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맞물려 벌어진 일이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유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10월을 중심으로 벌어진 정치적인 기획이었다. 우파 자본 국가의 지배 헤게모니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태극기 게양대 설치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에 주시해 2015년을 태극기 게양대라는 국가 미디어·이데올로기 장치가 전국에 재배치된 해로 파악하면서, 연구자는 전 영토를 이 상징적이고 물리적인 장치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국가 헤게모니 전략을 기록에 상세하게 남기고자 했다. 이 글은 국가의 보편적 외관화, 국체의 통합적 스펙터클화로 이름 붙일 수 있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탐구다. 서설(序說)이다. 주권이 태극기로써 발현되며 국위가 게양대를 통해 발흥하는, 명백히 과거로 회귀한 정황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다. 공간의 풍경뿐만 아니라 심상의 풍치까지 지배하기에 충분한 태극기 게양대의 회귀 사태를 의미 있게 읽어 내고자 하는 시도가 된다.

말했듯,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예외가 상례·범례화한 게 맞다. 조금씩 진행되던 상황이 2015년, 10월에 들어 결정적으로 폭발한다. 바로 그 지배적 증강 현상, 집약적 배치 양상이 중요하다. 초대형 게양대 설치라는 반복적 패턴의 폭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표상은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념을 내재화한다. 거꾸로, 이념은 표상을 통해 익숙하게 외면화된다.³⁵⁾ 태극기는 반복 배치를 통해 외면은 물론이고 내면의 풍경 안에 무의식으로서의 이념을 심는다. 공간을 점령하고 시각을 포획하며, 주체의 마음까지 장악한다. 태극기/게양대는 그런 지배적 국가 장치다.

때문에, 도처에 설립된 대형 태극기의 현상, 전국적으로 증강된 게양대의 현실을 비판적 문화 연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날카롭게 의식할 중요한 미디어적 사안이 된다. 국가 장치, 이데올로기 장치, 시각 장치의 주제를 문화 연구자는 쉽게 외면하지 않는다. 휘날리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정확히 그런 현실의 장치다. 지방/단체가 경쟁적으로 선택하지만 그에 앞서 정권/국가가 결정·주도한 게 틀림없을 태극기 선양 및 애국심 고취의 프로젝트다. 그 정황 및 문맥에 주목할 때, 2015년의 대형 태극기/게양대 배치 양상은 문화 연구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화 정치 사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35)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황홀’이라는 풍자적 니앙스의 소책자에서 보드리야르(1988, p. 26)가 쓴 “모든 내면성의 강제적 외양화(forced extraversion of all interiority)”, “모든 외양성의 강제화된 내면화(forced introjection of all exteriority)”라는 표현과도 상통한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게양대의 태극기다. 나라사랑에 도취된 ‘국민’을 분명 ‘커뮤니케이션의 황홀’에 빠트릴 풍경이다. 그 장치는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애국심이라는 ‘국민’의 내면성을 강제적으로 외양하고 있으며, 거꾸로 국가라는 외부 대상을 ‘우리’ 내면의 사이코이데올로기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의 지배적 표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태극기 게양대다(이효덕, 1996, 2002). 그것이 수반하는 애국의 프레임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정상적인, 상식적인 토론을 간단하게 제압한다. 비판적 담론을 배제시킨다. 현 국면의 노골적이고 지배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도 가세한다. 서문에서 말한 논란으로 돌아가자. “요절복통,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³⁶⁾ “도대체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은 성역처럼 허용하고 대한민국 상징의 거리에 대한민국의 태극기 게양을 불허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³⁷⁾ 의정부보훈지청 선양 담당자도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태극기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경시”를 시비한다.³⁸⁾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 자긍심의 상징이다.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 아니라 사회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 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다. 태극기에는 1882년 처음으로 국기를 가지게 된 수신사 일행의 자긍심이, 3·1운동의 독립정신이, 광복의 감동이, 조국 수호의 숭고함이, 변영 대한민국의 영광이 담겨 있다. 이러한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수많은 분들의 헌신을 비웃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모독하는 행위이다.³⁹⁾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비판이 태극기의 거부, 국가의 부정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비판의 여지를 폐위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담론 구조가 작동 중이다. 세월호 천막부터 당장 치우라는, 한 달 전 <조선일보> 사설의 기초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을 상징할 만한 장소”며, “여기에 태극기를 올리는 것을 문제 삼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⁴⁰⁾ <동아일보> 또한 “마음에 태극기를 답시다”라는 기획 기사를 신는다. 이제 “제복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에 다는 태극기 운동이 나라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표할 것이다.⁴¹⁾

애국과 결부된 태극기 게양 의 무의식이 반공 이념과 밀접히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있

36) <미디어펜> 2015. 9. 25. “국기게양대 안 되고 세월호 천막 되고... 광화문 광장의 비극.”

37) <경제풍월> 2015. 10. 30. ‘광화문에 왜 태극기 게양 못하나, 시민통행에 불편?’

38) <코나스> 2015. 10. 22. ‘태극기의 거부, 그 치명적인 위험성’

39) <코나스> 2015. 10. 22. ‘태극기의 거부, 그 치명적인 위험성’

40) <조선일보> 2015. 9. 24. [사설] 세월호 천막은 놔두고 태극기 게양은 안 되다니.

41) <동아일보> 2015. 10. 29. ‘마음에 태극기를 답시다’.

다. 태극기 날리기는 곧 ‘나라사랑’의 문제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애국심과 호국 정신 함양’의 국민 정신 운동이 필요하며, 태극기 게양은 바로 그런 ‘나라사랑교육’의 핵심 실천이다.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이기를, ‘국민’되기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신적 안보 태세가 허물어지면 국가 안보는 순식간에 무너져 그간 쌓아 온 경제적 성과는 물거품이 돼 버리고 만다.”⁴²⁾ 이 이념의 부담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체 누가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기실, 2015년 10월을 정점으로 한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를 별반 문제로 삼지 않거나 침묵으로써 현상을 승인하는 태도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연중 상시적으로 추진되었고 10월에 특별히 집중된, 각종 매체까지 참여해 민관 협동의 형태로 진행된 태극기 날리기 및 ‘나라사랑’ 캠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비판 혹은 저항과는 한참 거리 먼, 묵시적 인정이다. 이 글은 바로 이 아래로부터의 공감 혹은 합의에 주목했다.⁴³⁾ 태극기/게양대를 문제적 현상으로 의식하지 않는, 일상적 공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합의’ 양상에 주의코자 했다.

무의식적 순응을 요구하는 태극기고, 신체의 승복을 지령하는 게양대다. 외부를 폐위하는 ‘현재의 이미지’다(바디우, 2014/2015). 그런 압도적인 대형 시설물이 도처에 설치되어 그 제압 효과를 발휘한다. 강력한 반공과 애국의 미디어 담론을 수반하면서다. 태극기 비판을 대한민국 부정으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기반으로 해서다. 유행하는 태극기와 고착된 게양대는 바로 이런 현실적 실천들과 연동되어 지배 헤게모니 장치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재발한 국가 권력의 애국주의 통치 방식을 언제 어디서나 전시하는 ‘걸작(masterpiece)’이 된다.⁴⁴⁾

42) 〈아주경제〉 2015. 10. 29. ‘나라사랑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43) 이 대목은 현재로서는 순전히 저자의 개인적인 관측에 기초한다. 상황을 다소 과장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류매체는 물론이고,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지면이나 비판적인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비판 혹은 반대의 해석적 담론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은 맞다.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글쓴이는 이 구조화된 침묵을 수동적인 지지로 간주한다. 사실, 헤게모니 권력 지배는 반드시 능동적인 동의의 표식이나 적극적인 합의의 모습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극적인 방기, 수동적인 묵인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관철된다. 이 지점은 향후 현실주의 문화 연구의 국면 분석, 패권 비판이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중은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주체인 게 틀림없다.

44) 로스(Ross, 1988)는 가령 프랑스 도심에 선 하나의 걸작에 대해 문예 비평가라면 제 2 제정의 사회관계적 총체성을 뚫아 드러내는 것으로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공간을 점유하는 건축물은 바로 그 사회의 역사적 성격을 표현하는 기호학적 표면이라는 생각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로스의 문제의식을 좇아, 태극기 게양대를 사회적 공간에 구축된 하나의 ‘걸작’으로 간주하고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공간/미디어 문화 연구다.

시각적 상기의 반복 장치로 전국적으로 자리 잡는다(남수영, 2009). 현 스테이트(state: 국가/상황)의 성격을 기호로서 지시하는 말 그대로의 국가 기념물이 된다. 요컨대, 구조적 통치와 가시적 장치의 문제는 무관할 수 없다.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당연한 사이코이데올로기, 지당한 도덕률로 강화하는 태극기가 그 통치 장치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특별한 관찰의 시선을 계양대에 보내는 까닭이다. 아래로 다가가, 혹은 자동차로 스쳐 지나면서, 문화 연구자로서 본인은 2015년 10월에 부흥한 통치 장치에 관해 벤야민(1997/2007)이 말한 당파적 비판의 사유를 개진한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연구자는 역사적으로 미확정적인 태극기의 의미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태극기 날리기의 실천은 오직 정세에 따라, 국면에 의해 그 의미가 정해진다. 연구자가 이 글에서 강조코자 하는 것은, 2015년 보수화의 국면에 국가 권력이 태극기의 의미를 독점해 통치 효과를 발휘하려는 태극기 활용·전용의 지배 체계모니 우연성 전략이다. 자본 국가는 신보수·신자유주의 스테이트 혹은 국면에 대한 통치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태극기 계양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용코자 하는가? 태극기 계양대는 어떻게 국가 체계모니 장치로서 지배 전략화 되는가?

이 글은 그에 관한, 자답 형식으로 그려진 일종의 ‘풍속적 스케치’(보들레르, 1995/2013)에 해당한다, ‘사소한 것들에 대한 사유’다(권용선, 2014). 연구자는 온 데 상시 필릭 이는 초대형 태극기/계양대들이 한마디로 불쾌하다. 이 까다로운 문화 연구자는 이 현상을 부주의한 동료 문화 연구자들을 심드렁하게 바라본다. 물론, 그는 대중을 태극기 계양대 아래로 호명된 수동적 존재로 지목·비하할 뜻이 없다. “저항은 주체에 내재하는 존재의 법칙이다(벤사이드, 2001/2003, 36쪽).”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상 문제에 둔감한 주변 사람들을 시비하면서, 연구자는 국가 체계모니 우연성 전략에 우선적인 비판을 제기코자 했다.

참고 문헌

- 권용선 (2014). <발터 벤야민의 공부법>. 서울: 역사비평사.
- 남수영 (2009). <이미지 시대의 역사 기억: 다큐멘터리, 전복을 위한 반복>. 서울: 새물결.
- 이진경 (1997). <근대적 사·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 이효덕 (1996). *Hyoushyoukookan no kindai*. 박성관 (역) (2002). <표상 공간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 전규찬 (2015). 위기의 도시 도시문화의 재문맥화: 후기 피스크 비판적 공간사유와의 접속. <한국언론정보학보>. 70호, 35-65.
- 전규찬 (2015). 재난의 시기, 방송 매체 장치론의 재구성. <한국방송학보>. 29권 4호, 82-115.
- 전규찬 (2015). 신화정치의 위기 속 역사철학과 문화연구의 조우. <문화과학>. 84호, 314-341.
- Agamben, G. (2009). *What is an apparatu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lthusser, L. (1995). *Sur la reproduction*. 김웅권 (역). <재생산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 Badiou, A. (2013). *Pornographie de temps present*. 김상운 (역) (2015). <알랭 바디우, 오늘의 포르노그래피>. 서울: 북노마드.
- Baudelaire, C. (1995). *The painter of modern life and other essays*. 박기현 (역) (2013). <현대 생활의 화가>. 서울: 인문서재.
- Baudrillard, J. (1988). *The ecstasy of communication*. New York, NY: Semiotest(e).
- Benjamin, W. (1997). *One way street*. 조형준 (역) (2007). <일방통행로>. 서울: 새물결.
- Bensaid, D. (2001). *Resistance*. 김은주 (역) (2003). <저항: 일반 두더지학에 대한 시론>. 서울: 이후.
- Billig, M. (1995). *Banal nationalism*. London & Los Angeles, CA: Sage.
- Cho, H. J. (2007). A feminist critique of modernity and korean culture. In K. H. Chen & C. B. Huat (Eds.),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reader* (pp. 291-301). London & New York, NY: Routledge.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New York, NY: Vintage Books.
- Jost, J., Kay, A., & Thorisdottir, H. (2009).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system justification*. Oxford &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ramsci, A. (1971). *Prison notebook*. New York, NY: International Publishers.
- Grossberg, L. (1992).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New York, NY. & London: Routledge.
- Kohso, S. (2007). 流體都市 構築. 서울리다리티 (역) (2012).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서울: 갈무리.
- Laclau, E., & Mouffe. C. (1985). *Hegemony & Socialist Strategy*. London & New York: Verso.
- Morris, T. (2005). *Media, memory, history*. 김경원 (역) 2006. <우리안의 역사>. 서울: 후마니타스.
- Ross, K. (1988). *The emergence of social space: Rimbaud and the paris commune*. London & New York, NY: Verso.
- Schmitt, K. (1991).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hicago, IL.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ory of the National Flag Poles As a Hegemonic State Apparatus

Gyu-chan Jeon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focuses on the national “flagging” as a current affair, important phenomenon. National flags, it sees, take over various places, control the surrounding space, and even dictate everybody’s perspective by being visualized everywhere anytime. It investigates the issue of national flags and their hoisting poles as a sort of apparatuses that interpellate me as well as us into patriotic ‘gookmin’. The placement, arrangement of national flag poles around the country continued throughout 2015 and particularly speeded up in October of the year is regarded as a key symbolic, symptomatic sign to read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njuncture. Preparing a radically conjuncturist cultural study about the changing reality, the researcher will see the flagging poles as a phenomenal result, outcoming of certain intent and plan for reconstructing the political actuality. More precisely, he will interpretate the tall omni-present poles of national flags as a dispositif of appearing the neoliberal/neoconservative capitalist state, as an apparatus of constituting and expressing the masses’ psycho-ideological condition of today. The researcher, who perceives the national flag poles as a kind of ISAs, will first review the increased flagging phenomenon and related media discourses. Next, he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he ‘love our country’ ‘national flagging’ movements organized by the above and operated from the bottom. Then, he will focus more on the very tall national flag poles built and seen around the country. Finally, he will conclude the study with a critical remark, touching briefly the case of controversy over setting a pole in the center of Seoul city square.

KEYWORDS Flagging, Apparatus, Hegemony, Psycho-ideology, Contingency